

새만금 개발사업 성공적 추진

중기중앙회, 전북자치도 등과 업무협약 체결… 사업 투자·중소기업계 참여 등 주내용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24일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에서 전북 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BS산업과 함께 '새만금 개발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김민겸 BS산업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준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한 △(중소기업중앙회)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및 중소기업계 참여 △(전북자치도 및 군산시)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 △(새만금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24일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BS산업과 함께 '새만금 개발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발령)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BS산업) 개발사업 추진 제반사항 수립 및 실천 등이다.

△(BS산업) 개발사업 추진 제반사항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 재정, 이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지방소멸 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출

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새만금 개발사업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정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중소기업들이 좋은 조건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새만금 개발 지역에 많은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외국인력 등 근로인력 관련 확보 등 여건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새만금개발청, 조직문화 혁신 위한 '소통 릴레이' 시작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청 내 젊은 직원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 릴레이'를 시작한다.

먼저, 김경안 청장은 24일 새만금청 내 혁신그룹인 '새만금 뉴웨이브(New wave, 이하 뉴웨이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출범한 새만금 뉴웨이브 회원들에 대한 환영과 함께,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뉴웨이브 회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저연차·엄마(MZ세대 직원들을 대표해 조직 혁신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김경안 청장은 회원들의 의견과 견의를 경청하고 혁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격식을 떠나 솔직한 조언과 격려를 전했다.

새만금청 '소통 릴레이'는 6월 청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차장 등 청내 고위 간부진들에게 비통을 넘긴다. 뉴웨이브는 이 외에도 적극행정 활성화, 반부패 청렴 문화 정착 등 다양한 혁신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사업의 미래를 이끌 젊은 직원들에게 일할 땐 나는 지장을 만들어 주는 것 이 우리의 과제"라면서, "젊음의 역동성과 경험의 지혜가 함께 어우러지는 새만금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농어촌공사,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이용하세요"

개정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농지매매·임차임대사업,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한국농어촌공사는 그동안의 농업인 간담회를 통해 수립된 의견을 중심으로 청년농업인은 물론 전업농업인의 지원 혜택을 늘려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의 제도개선을 지난 6월 5일 완료하고,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 매매사업', '임차임대사업'을 포함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의 주요 개선안은 크게 4가지로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를 도와 농업경영 경제력, 효율성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목표이다.

먼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의 개선 사항은 두 가지다. 농지 임대자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했던 '농업용 비닐온실 설치 승인 신청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농지 임대 계약 종기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농지 집단화를 위하여 농업인이 공공임대 농지 간 상호교환을 희망하는 경우 공고 없이 교환할 수 있는 개선안은 크게 4가지로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를 도와 농업경영 경제력, 효율성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목표이다.

한편, '농지매입사업'과 '임차임대사업'

에서는 경영규모가 6㏊ 이상인 전업 농업인의 농지지원 한도를 상향 개

선한다. 10㏊까지 지원되던 농지매

매, 임차임대 규모를 15㏊까지 확장해 대규모 농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자를 매입, 임차할 경우, 기존에는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에 한하여 농지의 공고 절차 없이 농지를 지원하였으나, 대상 폭을 확대해 전업농 육성대상자와 전업농업인까지 지원한다.

하태선 농지은행처장은 "많은 농업인이 이번 개정으로 농업의 규모를 키우고, 효율화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경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더 나은 농업환경 조성 위해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해킹사고 예방 위한 선제적 점검 실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웹사이트 안전성 확보를 위해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공단 NPS 사이버보안 관제센터에서 해킹 공격상황을 대비한 보안취약점 교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연금공단이 주관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전북 4개 관계기관의 보안실무자 및 민·관 보

안전문가, 화이트해커 등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운영된다.

합동 점검팀은 증거하고 있는 웹 공

격 트렌드를 반영하여 기관별 대표 홈

페이지 등 40개 웹사이트에 대해 인증

우회* 등 최근 보안인증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후 발견되는 취약점은 최우선적으로 개선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며, 우수시례 발굴 시 협업기관 간 보안 강화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정보보안 문화 확산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북 관계기관과의 상호교류·협력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2023년에는 전북 최초로 '전북 청년 대상 사이버위협대응 경진대회'를 개최해 정보보안 인재 육성에 기여한 바 있다.

/김옥기 기자

'금빛 스매싱 특판 적금' 출시

전북은행,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공회용 선수 선정 기원

JB 금융자주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전북은행 배드민턴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금빛 스매싱 특판 적금'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금빛 스매싱' 특판 적금은 올해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전북은행 배드민턴 선수단 소속 공회용 선수의 성적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제공하며, 1년제로 기입이 가능한 정액적립식 상품이다.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로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에서 기입 가능하다.

금리는 최고 연 4.5%로 기본금리 3.0‰에 공회용 선수의 올림픽 성적에 따라 최고 0.5‰ JB모임통장 최고 1.0‰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공회용 선수가 금 또는 은메달 획득 시 0.5‰ 등등 0.3‰ 8강 진출 시 0.2‰의 우대금리가 각각 제공되며, JB모임통장우대는 이 적금의 만기일 전전월 기



준 JB모임통장의 모임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1.0% 10명 이상인 경우 0.5% 5명 이상인 경우 0.3% 2명 이상인 경우 0.2%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북은행은 2024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이번 특판 적금을 출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고객님들에게 맞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모바일뱅킹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만호 기자

JB카드, 바캉스 시즌 맞이 '경쾌한 썸머 페스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비캉스 시즌을 맞아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JB카드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경품과 캐시백 혜택이 가능한 '경쾌한 썸머'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썸머 업종 이용 금액에 따라 J머니 포인트를 지급한다. 썸머업종은 주유(총전), 대중교통(항공), 숙박, 면세점(오프라인), 여행사, 해외 기행점 업종으로 누적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2만 포인트까지 지급된다.

응모 고객 중 썸머업종 누적 30만원 이상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 1명에게 250만원 상당의 셀린느 레이디백 △2등 10명에게 J머니 10만 포인트 △3등 220명에게는 GS칼텍스 모바일 주유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또한 개인 신용카드 고객 대상 주요 위터파크에서 입장권 할인도 제공된다. △완주 '이루이티파크 아미존'에서는 전월 실적 20만원 이상 충족시 동반 3인까지 10% 청구할인 △부안 '소노별 면산 오션풀파크'에서는 전북 지역민 할인을 포함하여 최대 40%까지 할인혜택 △전남 나주시 소재 중흥골드스파 워터파크'에서는 전월실적 20만원 이상 충족 시 최대 30%까지 입장권 현장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올 여름 최대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JB카드 고객 니즈에 맞는 시즌별 이벤트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aT, 싱가포르 난양공대와 먹거리 지속가능성 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사장 김춘진)와 싱가포르 난양공대 학교 변화환경연구센터(센터장 조남준)는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지속 가능한 식품산업 발전과 저탄소 식생활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한민국 식품 산업화 기술 지원 및 협력, 기관 간 협력, 학술 및 기술 교류 등을 통해 협력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